

AI를 잘 쓰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AI 활용법

구요한 / CMDSPACE

2026.09.10 목요일 14:00-15:00

제가 소개할 것은 제가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10,000+ 노트의 지식 생태계

기업 경영진 교육과 코칭 / 연구자 교육

지식관리 → 소프트웨어 → 강의와 글

cmdspace.work

시는 쓰는데, 일은 왜 매번 다시 시작할까요?

질문은 많아졌다

/ 업무 기록은 남았는가

답은 빨라졌다

/ 우리 맥락은 이어지는가

초안은 늘었다

/ 확인할 일도 늘지 않았는가

잘 쓰는 사람은 세 가지를 다르게 설계합니다

말길 업무

기억할 맥락

통과할 기준

묻지 않고 맡긴다

답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될 업무를 넘긴다

좋은 질문보다 작업 계약이 먼저입니다

질문: 오늘 한 일 정리해줘

위임: 매일 정해진 시각에 승인된 기록을 읽어라

산출: 결정 / 근거 / 다음 행동을 구분해 저장하라

예외: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말고 비워라

업무일지는 기억을 짜내는 문서가 아니라 기록을 모으는 결과물입니다

2026.09.08 실제 자동 생성 업무기록 발췌

19:13 ... 시스템 문서 갱신

cmds-share: ... 표가 raw 파이프 텍스트로 공유되던 버그 수정

활동 시각 + 한 일 + 구체적 변경 내용

연구와 행정은 달라도 기록의 구조는 같습니다

연구: 관찰 / 조건 / 해석 / 다음 실험

행정: 요청 / 근거 규정 / 결정 / 다음 조치

공통: 원문 링크 / 담당 / 확인할 사항

자동으로 쓰는 것보다 무엇을 읽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읽기 범위는 최소화

원본은 보존

사실과 추정은 분리

외부 전송은 승인된 경로만

여러분의 금요일 오후에서 반복되는 일 하나만 고른다면?

언제 시작할까?

무엇을 읽을까?

어디에 남길까?

무엇이면 멈출까?

매번 설명하지 않는다

AI의 기억력을 기대하기보다

맥락이 남을 자리를 만든다

맥락은 길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찾아 쓰는 것입니다

업무 배경:

목적 / 대상 / 제약

참고 근거:

원문 / 날짜 / 버전

이전 판단:

결정 / 이유 / 남은 질문

포맷은 사고를 강제합니다

'회의 내용'만 있으면 요약이 남습니다

'결정 / 근거 / 담당 / 기한'이 있으면 일이 남습니다

마크다운은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AI가 함께 읽는 연결 형식입니다

좋은 검색은 답에서 끝나지 않고 근거로 돌아옵니다

질문: 반복 업무를 맡기기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할까?

찾은 노트: Human-Agent Handoff Cycle

원문 발췌: 에이전트가 만들고, 사람이 판단하고,
다시 에이전트에게 넘긴다

실제 검색·원문 확인 | 2026.09.10

쌓아둔 자료와 다시 쓸 지식은 다릅니다

Connect: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연결

Merge:

여러 근거를 내 언어로 통합

Develop:

업무와 도구에 적용

Share:

결과를 내고 다음 맥락으로 환류

새 담당자와 새 AI에게 같은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까?

맥락 파일 하나

원문으로 가는 링크

누가 언제 고치는지

검수하지 않고 기준을 준다

검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먼저 실행 가능하게 만든다

1,000개 가상 응답 실행을 하나의 규칙으로 관리합니다

정책연구 프로젝트의 합성 페르소나 사례

자동화한 것: 생성 / 검사 / 실패 회수

실제 사람 대상 조사나 대표 여론이 아닙니다

규모가 커지면 좋은 요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력: 페르소나 / 문항 / 실행 조건

출력: 정해진 항목 / 유효한 값 / 실행 식별자

실패: 누락 / 형식 오류 / 중단을 따로 기록

기준을 주면 실패도 다음 행동이 됩니다

기준: 점수는 1-5 / 근거는 필수

입력: 점수 7, 근거 없음 → 검사 실패

다음 행동: 오류를 돌려주고 재시도

범위·근거를 다시 검사 → 통과 또는 중단

교육용 예시 | 실제 조사 문항·응답 아님

진행률 하나로는 끝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획된 실행 / 시도한 실행

검사를 통과한 결과 / 재시도 대기

남은 실패 / 사람이 판단할 예외

운영 원리 예시 | 비공개 연구 결과는 미포함

형식이 맞는 답과 믿을 만한 결론은 다릅니다

자동 확인: 누락 / 값의 범위 / 중복 / 형식

사람의 판단: 대표성 / 편향 / 해석 / 활용 범위

'통과했다'와 '타당하다'를 구분한다

세 가지 차이는 결국 하나의 구조입니다

업무를 정의하고

맥락을 남기고

기준으로 반복한다

같은 주간보고도 맡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Prompt:

이번 주 보고서 써줘

Context:

활동 기록과 지난 보고서를 함께
제공

Harness:

승인된 폴더를 읽고 초안만 저장

Loop:

누락을 검사하고 예외만
담당자에게

세컨드 브레인 보관함을 넘어 작업 환경이 됩니다

노트: 관찰과 출처가 남는다

위키: 반복 쓰는 개념과 관계를 엮는다

에이전트: 필요한 지식을 읽어 산출물을 만든다

새 결과와 검토 기록 → 다음 맥락

AI를 잘 쓰는 능력은 이미 하던 일을 다시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연구자: 재현 가능한 조건과 근거

행정·지원자: 반복 가능한 절차와 책임

공통: 좋은 결과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가

내일부터는 파일 하나와 업무 하나로 시작하세요

입력: '금요일 공개 세미나 안내, 장소 미정'

요청: 제공된 문장만 사용해 공지 초안을 써라

형식: 일정 / 장소 / 확인할 일

기준: 모르는 정보는 '미정'으로 남겨라

결과: 금요일 / 미정 / 장소 확정 필요

교육용 예시 | 승인된 AI 작업 공간에 자료와 기준을 함께

자기 시스템은 말이 아니라 근거로 점검합니다

Prompt:

요청

Context:

맥락

Harness:

실행 환경

Loop:

반복과 검증

Interop & Governance:

연결과 책임

빈손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만들어 둔 것을 드립니다

시스템 파일 | system.cmdspace.work

CMDS 스타터킷 | github.com/johnfkoo951/cmds-vault

LLM Wiki 스타터킷 | github.com/johnfkoo951/cmds-llm-wiki

CmdMD | cmdmd.cmdspace.work

AKM Index | akm.cmdspace.work

좋은 답변은 한 번을 돕고, 좋은 구조는 다음 일도 돕습니다

문기에서 말기기로

재설명에서 맥락으로

사후 수정에서 기준으로

구요한 / CMDSPACE